

歷史紀行

人間은
왜 記錄을
남기고자 하는가

— 郷土史料의 深層踏査 —

李 奉 燮

● 歷史紀行 人間은 왜 記錄을 남기고자 하는가 / 印刷: 1986年 3月 31日 / 發行: 1986年 4月 5日
著者: 李奉燮 / 印刷: 靑雄製紙(株)出版部(登錄 第8號) · 全州市 高士洞 2街 315番地 · ☎ 72-1196~8

人間은 왜 記錄을 남기고자 하는가

目 次

自序・文化의 本質과 그 累積性

어제의 郷土와 未來의 郷土像 全北日報社長 徐 廷 祥

南固山城 주변

千年 머릿돌의 고집..... 14

赤裳山城과 史庫址

왜 城을 쌓았는가..... 18

全群道路의 아이러니

앞으로 뻗은 길과 뒤로 뻗은길..... 22

扶安「梅窓」

한송이 水仙의 사랑과 노래..... 26

鎭安 竹島와 「소리실」

꼬리잘린 「대섬」의 흐느낌..... 30

任實 聖壽山일대

바람을 가두고 물을 얻는다. 34

全北 西部들녘

살점같은 땅을 왜 빼앗겨야 했는가..... 38

進鳳半島와 望海寺 點景

42 永劫을 흐르는 萬頃의 물빛

蛟龍山城과 南原의 水氣

46 人間은 왜 記錄을 남기고자 하는가

任實가담場과 淳昌동계場

50 脚力이 약해진, 장꾼들의 시름

大雅新담과 穀倉지대

54 飢餓의 역사와 2천km의 젖줄

義兵將 李錫庸의 「行動美學」

58 누가 「사람」을 審判할 수 있는가

판소리의 聖人 申在孝
어떻게 울고 어떻게 웃었는가 62

素服입은 내장산
人間은 山에서 태어나다 66

儒鄉泰仁縣과 武城書院의 그늘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는가 70

武王의 에네르기와 미륵사지石塔
텅빈 벌판에 「巨大한 百濟」가 열린다 74

群山港의 「不請客」과 그 교훈
왜 「그들」은 大陸으로만 오는가 78

「智異」의 星神과 洪陟의 實相寺
때문은 大自然에 人間の 냄새들이 82

荒山大捷과 雲峰의 싸움터
「倭寇」가 할퀴고간 勝戰碑의 유해 86

「寒碧晴煙」속 崔秉心私塾
玉流洞의 물빛과 대바람 소리 90

94 剛泉山의 「空」의 世界
「煩惱」에서 깨달음의 빛을 찾는다

98 豐南門과 完山鐘의 受難
「三十三天」저 끝까지 鐘을 울려라

102 「永明」의 抵抗과 群山 3.1義舉
「모든 「殘忍함」은 「怯」에서 비롯된다

106 界火섬에 드리운 田愚의道袍
여기 한 선비의 의연한 殘影이

110 童話속의 書道驛
「만남」과 「헤어짐」의 汽笛소리가

114 「羅濟通門」과 「파리배미沼」
영원한 平和와 戰爭의 함수

118 智異山 精氣와 匠人의 恨
옹자귀로 찍어내고 오부칼로 우벼내고

122 馬耳山 품안의 塔舍
「塔」... 人間の 理想郷이 여기라는데

「貴族의 물」과 四仙臺 모든 生命의 원천은 물·물	126
벗꽃 名所와 사랑의 聖地 「사랑의 美學」은 投我와 殉敎에서	130
益山 石山과 돌 文化의 人間史 「山」이 깨어지고 「돌」이 우는 소리	134
赤城江 물빛과 고추장 文化 산 自然 물, 自然 나또한 自然	138
「배들」萬石狀과 「恨」의 현장 「영원한 파랑새」... 녹두將軍 全瑋準	142
西海의 眞珠.....謂島 장엄한 새벽에 모든 「創造」가	146
「벼골」의 들녘과 「東津」의 물줄기 넓은들에 너울대는 農夫歌와 그 豐饒	150
「수릿날」의 回憶과 그 餘談들 陰 5月 陽氣속에 고독한 疾走가	154
158	邊山에서 느끼는 順理와 無我 바다여 너는 強者이노니
162	선비像의 行方과 오늘의 懷疑 「人間」에 굶주려온 「시빌리언」의 理想
166	威鳳山城터와 「良人」의 시름 세월속에 증발한 「良役」의 현장
170	任實 昭忠祠와 墓域정화 義로운 녀들을 거두어야 한다
174	長安山 精氣와 德山の 浩然之氣 俗化된 모든것이 다시 創生의 시작으로
178	扶安仙溪골과 「礪溪」의 꾸짖음 어찌하여 좋은 세월 다 虛送하고
182	三綱의 현장 華陽山 「皇壇」 人間이 仙化하는 苦行의 길이 여기에
186	「詩的공간」 무주 寒風樓 地上的 「玉樓」에서 山水를 노래한다

雲岩大捷과 梁大棟장군 무심한 「寒江獨釣」...義兵들의 喊聲이.....	190
長水郷校와 丁敬孫 예부터 「가르침」의 근원은 「孝」라는데	194
黃登발의 내력과 飢餓의 역사 방죽물을 빼고 논을 쳤던 어리석음	198
六茅亭의 感傷과 智異山 품안 開闢이래 지켜온 沈默속에	202
「戰史」속의 義將 黃進 그 時代에 꼭 있어야 했던 사람	206
太古이래 災殃과 全州지방의 地震 땅이 갈라지고 물이 넘친다	210
長水石器와 「돌」 哲學 「石壽圖」는 영원히 未完成이다.....	214
全州韓紙와 「종이文化」의 始末 닥나무가 열어놓은 文明의 새창	218
222	「固有紙」의 흔적과 全州近郊 「세월」 알바없는 「紙所」의 女工들
226	鎭安高原의 「地精」...人蔘 自然은 「大宇宙」・人體는 「小宇宙」
230	春香의 貞節과 五里亭의 가을 「지아비」는 곧 「하늘」이라 했거늘
234	도도한 錦江과 河口둑 西海로 눈을 돌려 땅을 넓힌다
238	한 士大夫의 소망과 井邑, 金東洙 家舍 밝은 터를 다지고 永世를 꿈꾼다
242	東上 乾柿와 두메의 시름 풍요가 주렁주렁 감고장 인심
246	母岳山 기슭의 祈禱하는 할머니 弱한 者여 그대 이름은 「人間」이노니
250	「豊・沛」의 터 全州와 全州人 잊어버린 「고향」과 그리움의 「고향」

앞으로 뻗은 길과 뒤로 뻗은 길

쌀 搬出노려 日人 群山港 눈독
빼앗음과 빼앗김 두 意味지녀

길은 앞으로만 있다. 어디에서 어디로 향한 길이든, 길은 앞으로만 뻗어 있다. 길이 뻗는 앞에는 새로운 이변이 일어난다. 전에 없었던 일들이 생겨나고 어떤 의미에서든 새로운 상황이 열린다.

「새로움」을 향해 길은 달린다. 따라서 길은 모든 가능성의 수단이며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게 새로 나는 길은 대부분의 경우 그 가능성의 한계에서 「리로움」과 「創造」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發展」이라고도 하고 「向上」이라고도 일컫는다.

그러나 모든 길이 처음 뚫릴때, 이처럼 創造와 이로움의 向上을 모든사람에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새로 뻗은 길 때문에 피맺히는 슬픔과 엄청난 고난과 후퇴를 맛봐야 하는 대상이 있다. 「새길」로 하여금 나타난 異變이 불행과 시련의 이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그러한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앞으로 뻗은 길」이 아니라 「뒤로만 뻗은 길」일 것이다.

湖南 最古의 「新作路」 애환

앞으로 뻗지 않고, 뒤로만 뻗은 길…….

지금부터 약 80년전의 全·群道路는 우리에게 있어 분명히 「뒤로 뻗은 길」이었다.

그러니까 치욕의 한일 합방이 되기 3년전인 1907년에 개설된 도로는 그시절 사람들에게겐 이변과 놀라움의 대상으로 충분한 「新作路」였다. 그 新作路의 출현은 분명히 이변이었고 새로운 상황의 啓示였다. 그러나 이 異變과 새로운 상황의 열림은, 全北人들의 발전이나 이로움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김과 뒷걸음질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당시 全·群道路의 개설은, 전주평야 주민들의 내면적 요구나 현실적 필요에 의해 뚫린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잠식하려는 日本 침략세력의 수탈의 수단으로 이뤄졌던 것이다.

20世紀 벽두, 우리보다 앞서 근대국가 형성을 마친 日本은, 여세를 몰아 이른바 大陸經略에 기를 쓰고 있었다.

그 첫번째 관문이 한반도 잠식이었다. 우리의 大韓帝國이 엄연히 존립하고 있는데도, 일본의 신흥세력은 거의 무법천지인 양 한반도 도처에 허를 대고 침을 바르기 시작했다. 그 구체적인 사례의 하나가 韓半島, 특히 비옥한 농토가 질펀한 서해안 일대에서의 농산물 반출이었다.

때마침 극도의 식량부족 현상을 빚고 있던 일본인들은 곡창인 전북평야에서 생산되는 쌀과 면화등을 미친듯이 밀반출 해나갔다. 그 농

산물 밀반출의 막후에는 日本의 신흥재벌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일본정부는 직접간접으로 농산물 밀반출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무렵, 『어떻게 하면 全北內陸地方의 농산물까지 더욱 능률적으로 반출해갈 수 있는가?』하는 궁리끝에 소위 통감부의 힘을 빌어 뚫어 놓은게 全·群도로였다. 따라서 수탈자에겐 편리한 「新作路」였지만 빼앗기는 사람에게는 가난을 향한 뒷걸음질의 길일뿐이었다.

그 길이 오늘 「繁榮路」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것은 新作路시절의 全·群도로를 생각할 때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지금은 우

리에게 번영을 보장해주는 「앞으로 뻗은길」이 됐지만 본디 그것이 우리에게 뒷걸음질을 강요했던 新作路였음을 잊을수가 없다.

쌀 搬出의 巨大한 파이프 구실

비옥한 全州평야를 거의 직선으로 꿰뚫고疾走한 全·群도로가 도달하는 곳은 西海의 관문인 群山이다.

群山港... 1899年 馬山·城津과 함께 개항하기 전까지 이곳은 아직도 한적한 浦口였다. 하긴 百濟 때 馬西良縣에 속했던 이곳은 新羅에 이르러 沃溝라 개칭되고 臨陂縣에 예속된



全·群道路 개통이후의 群山港. 全北의 內陸地方으로 통하는 全·群道路가 개통된 이후 群山港은 하루가 다르게 비대해졌다. 이곳을 거점으로 삼은 日本人 謀利輩들은 全北地方에서 생산되는 쌀·綿花·荏子등을 무제한으로 반출해 나갔다.

적도 있는 유서깊은 故土다. 高麗를 지나 朝鮮 太祖 6年(1397年)에는 「鎮」을 설치하여 兵馬使가 해상방위와 함께 고을의 행정까지 맡아보게 했었다.

이곳에 일찌기 水軍의 鎮營을 두게 된 것은 호남지방에서 징수한 稅米를 보관하는 漕倉이 있었기 때문이며 群山에 이렇게 보관된 稅米는 배편으로 서울에 보내졌다. 그 운송을 위해 漕船이 항상 대령하고 있었다. 비록 木船이긴 했지만 벼 2백섬을 싣는다는 平底船과 벼 1천섬을 싣어 나르는 수십척의 噴馬船이 포구를 메우고 있는 정경은 그대로 한쪽의 「太平盛代圖」였을 것이다. 허나 조창에 가득한 稅米를

노리고 왜구들의 침범도 잦았다. 그런 이유로 群山은 더욱 水軍事上의 요지로 꼽히고 있었다. 이름높은 崔茂宣의 鎮浦대첩 (지금의 錦江 입구에서 崔茂宣이 火器를 사용, 倭船 5백여 척을 불사른 海戰, 1380년)으로 왜구는 일시 뿌리가 뽑힌 듯 했으나 그래도 간헐적으로 침입하는 왜구의 섬멸에 있어 群山은 계속 해상의 전초기지로서 중시되던 곳이었다.

그러나, 19世紀가 끝나가고 20世紀의 벽두를 눈앞에 둔 이무렵의 群山港엔 그 우람했던 噴馬船이나 戰船은 그림자도 없었다. 그대신 시커먼 연기를 토하며 발동소리를 진동시키는 검은배(黑船)가 방자하게 넘나들었고 이



오늘의 繁榮路. 1907년 개통된 全·群도로는 이고장 최초의 「新作路」였다. 그러나 이길은 日本人들에게는 신바람나는 新作路였지만 빼앗김을 당하고 있던 全北道民에게는 슬픔의 道路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이길은 全北發展의 大動脈 구실을 하고 있다.

번엔 양복차림을 한 작달막한 新種의 구들이 거
들먹거리며 갯벌을 올라오고 있었다.

日本人들의 한반도 침입... 믿어지지 않는
일같지만 일본인들은 群山港이 정식으로 문호
를 개방하기 전부터 수도 없이 이곳에 드나들
고 있었다. 명백한 밀입국이었다. 허나 그것을
호되게 나무라고 벌을 줄만한 여력이 빈사상태
의 구한국정부에는 없었다. 그런 가운데 개항이
단행 되고 개항이 되자마자 일본은 木浦領事館
군산 출장소를 설치하여 日本人 밀입국자들에
게 合法의 명찰을 달아주었다.

이들이 하필이면 西海岸의 群山과 苗浦등지
에 기를 쓰고 발을 붙였던 까닭은 「쌀」 때문
이었다. 식량을 노략질하기 위해 넘나든 것으
로 본다면 高麗 이후 창궐했던 倭寇들과 조금
도 다를 것이 없었다. 옛날의 왜구들은 칼을
번득이며 약탈해 갔고 20世紀의 왜구들은 교
활한 웃음과 지폐를 하늘거리며 농민들의 식
량을 야바위 상거래로 훔쳐 갔다.

이른바 農產物搬出... 그들의 반출 품목은
쌀과 綿花와 荳子の 세 가지였다. 처음엔 그저
몇백섬씩 보따리 장사처럼 빼내다가 횡수가
거듭될수록 그 규모는 눈덩이 구르듯 커졌다.
수천섬 수만섬의 쌀이 비좁은 浦口에 쌓였고
쌓였는가 싶으면 어느결에 실려나갔다. 이러한
쌀 반출을 위해 거대한 파이프 구실을 했던게
왕년의 全·群道路 였다.

나그네를 압도하는 코스모스길

늦 10월의 코스모스는 청초하고 가냘프다기
보다, 그저 화사한 편이다. 그것이 한두송이
가 아니라 수백그루씩 群落을 이루어 늦가을
갯바람에 몸을 흔들면 성숙한 女人들의 群舞
처럼 느껴진다.

취재차로 코스모스의 터널속 같은 繁榮路를
달려가노라면, 淫談이 아니라 성숙한 女人의
살갗위를 지나는 것 같다.

매끈한 감각과 짙은 살냄새가 뇌리를 감싼
다. 이 길이 좀더 길게길게 뻗어주었으면 싶다.
그런 환각속에서 꽃길 저편으로 감미롭게 빨려
들어가는 나그네는 가벼운 현기증과 쾌감마저

느낀다. 무척 아늑하고 흐뭇한 것이다.

오늘의 이 길은 「앞으로만 뻗은길」임이 분
명하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길은 코스모스
무늬의 화사한 잠옷을 입은 「아내」처럼 포
근하다. 그러나 이것은 길 양편의 황금벌판에
풍년이 가득히 고여있는 가을철의 얘기다. 또
한 다소 늦은봄, 구름같은 벚꽃이 멍에를 하
면, 그 壯觀이 나그네를 압도한다.

몇년전인가, 길을 키우는 공사를 하면서 하
필이면 가로수로 「벚꽃」을 택했느냐는 일부
비판과 회의의 소리도 있었다한다. 벚꽃은 日
本の 상징이라는 점이 그사람들에게는 걸렸는
지도 모른다.

아닌게 아니라 80년전의 인본인 쌀 모리배
들은 이 길을 뚫어놓고 준비하게 「사꾸라」를
심었으면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꾸라」보
다 돈이 더 급했던지 거기까지는 국수주의가
미치지 못했었다. 현대 80년이 지난 오늘 우
리는 「사꾸라」인 벚꽃을 심어 하나의 名所
로 가꾸어 놓았다. 벚꽃의 원산지가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 제주도지방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日本人의 때로 절은 이 간선도로에
벚꽃의 축제가 벌어진다는 일은 나그네를 그냥
둔감하게 놓아두지만은 않는다. 또 일본인들이
「사꾸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숭상한
들 그것은 오늘의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노
라고 여기면서도 봄철의 벚꽃가로수는 은근한
저항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꼭 그런의미에서만은 아니지만, 역시 全州~
群山을 직결하는 이 大幹線은 봄보다 가을철
의 主人公으로서가 더 제격이다. 맥박의 活氣
도 가을철이 단연 기운차다. 46km의 풀코스
가 生體의 동맥처럼 꿈틀댄다. 全州·裡里·群
山の 3개 공업단지를 구슬처럼 꿰고, 비옥한
全北의 西部평야를 거느린 繁榮路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80년전 쇠달구지나 지게꾼들이 쌀을 나르
던 全·群도로. 뒤로만 뻗은 길이었지만 시
원하게 뚫린 아스팔트위를 국산 승용차가 초
고속으로 질주하는 오늘의 繁榮路는 분명히
「앞으로만 뻗은 길」이다.

陰 5 월 陽氣속에 고독한 疾走가

창포탕에 먹감고 재액막는 祈願
陽數가 겹쳐 天中佳節로 숭상

中國 戰國時代 楚나라에 굴원(屈原)이라는 충신이 있었다. (屈은 姓이고 이름이 原이다) 그의 벼슬이 「三閭大夫」에 이르렀으며 屈三閭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주변 奸臣들의 모함에 의해 流配를 당하는등 시련을 겪다가 汨羅水(汨羅水)라는 강물에서 돌을 끼안고 투신자살 해버렸다. 평소 그를 존경하던 村民들은 이때 屈原의 시신이 물고기밥이 될까봐 종자(粽子)라고 하는 편수떡을 물여울에 뿌리며 급히 전져냈다. 이로 인하여 중국에서는 이날(5월 5일)이 되면 종자를 만들어 먹었으며, 강에서는 노젓기시합(競漕會)을 했다 한다... 또한 편수떡을 물여울(水瀨)에 던지며 屈原을 제사지냈는데 이날(5월 5일)을 수릿날(水瀨日)이라 했다.

우리가 말하는 5월 단오날을 「수릿날」이라고 부르게 된 까닭을 밝힌 대목이다. 正祖때의 학자 金邁淳이 지은 「洌陽歲時記」에 나오는 내용이다.

「수릿날」과 「수릿날」

그러나 음력 5월 5일을 「수릿날」이라고 일컫는 까닭은 이게 아닌것 같다. 앞서의 金邁

淳이 단오의 연원을 굳이 중국의 풍속에서만 찾으려 했던 것도 약간의 저항을 느낀다.

5월 단오절 풍속이 당초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일지 모르나 「수릿날」 아닌 「수릿날」에 대한 또다른 풀이가 있다. 正祖때 柳得恭이 편찬한 「京都雜志」의 내용이 그것이다.

柳得恭은 北學派의 거장 朴趾源의 제자로 박제가 이덕무, 이서구와 함께 후기 漢學의 4大家로 꼽히는 사람이다. 또한 그는 「實事求是」의 방법으로 산업진흥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 實學者였다. 그가 서울의 文物제도와 풍속 등을 기술한 책이 京都雜志이다.

여기에 보면

「...단오를 속된 불음으로 수릿날이라 한다. 우리는 우리말의 수레다...」(端午俗名戌衣日 戌衣者東語車也...)라고 했다. 그의 설명을 더 들어 보자.

「이날(수릿날)은 썩으로 떡을 만드는데 수레바퀴 모양으로 만들어 먹는다. 그러므로 수릿날이라 한다. 썩잎이 작고 둥글며 등이 흰것을 햇볕에 말려 부수어 부싷깃(火絨)을 만든다. 또 그것을 짓이겨 떡속에 넣어 녹색이 나도록 반죽하여 수레바퀴 모양의 떡을 만든다. 그러므로 술의취(戌衣翠)라고도 한다... (略)」

생각컨대 武珪의 연복잡지에 요원지방 풍속에
5월 5일 발해의 厨子(요리사)가 쑥떡을 올
린다고 (王에게) 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풍속
의 시초다... (大洋書籍刊・韓國名著全集 가운
데의 京都雜志편 178p 참조)

「수릿날」의 수리(수레)를 「車」의 수레
라고도 말하고 (車인 수레의 옛말은 「술위」이
다) 또 「쑥」을 「수리치」라고도 하는 대목이
다소 오락가락스러우나 아뭏든 「수리」라는 본
래의 말을 「戌衣」나 「車」(수레)니로 연결
시켜 한자식 표기를 해 놓고 있다. 어느 표기가
정확한지는 몰라도 단오를 「수릿날」이라
했던 것은 漢字文化 이전부터의 일인것 같다.

어쨌든 단오에 「쑥」이 등장하는 것은 흥미

롭다. 洌陽歲記에 나오는 편수떡(粽子)은 일
종의 만두같은 식품으로 이는 北方系 사람들이
즐거 먹었으며 우리는 만두대신 쑥을 食用이나
藥草로 常用했으므로 藥効가 가장 좋을 5월의
쑥(수리)을 단오날에 먹었음직 하다.

開國神話속의 「쑥」 이야기

따지고보면 우리 민족과 「쑥」과의 관계는
아득하게 깊다. 開國元祖인 檀君神話에서 부터
「쑥」이 등장한다. 다소 지루할지 모르나 三
國遺事 紀異篇 古朝鮮條에 나오는 내용을 옮겨
보면,

「옛날에 桓因天帝의 庶子 桓雄이 항상 뜻을
인간세상에 두거늘, 그 뜻을 알고 天符印 3개



음 5월 5일. 단오날의 全州 난장 풍경.

를 주어 세상에 내려가 다스리게 했다. 무리 3천을 거느리고 太白山 꼭대기의 神檀樹 아래 神市를 열었으니 이이가 桓雄天王이다. (略) 그때에 곰 한마리와 범 한마리가 있어 사람되기를 원하므로 성스러운 「쑥」(艾) 1 자루와 마늘 20 톨을 주어 이것을 먹고 1백일동안 햇빛을 보지 아니하면 사람이 되리라 하였다.

(略) 범은 건디지 못하고 곰은 마침내 건디어 사람(熊女)이 되었다. (略) 桓雄이 잠간 변하여 熊女와 혼인하니, 여기서 낳은 아들이 檀君이다...

이렇게 우리의 개국신화에 쑥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쑥을 식용했고 그것을 숭상했는가를 알수 있다. 이때의 「쑥」과 단오날의 「쑥」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는 필자의 할일도 아니고 더구나 할수도 없는 터라 접어두겠으나, 좌우간 우리 한민족과 쑥과의 인연은 太古적부터의 일이다.

이에 대한 또 한 사람의 證人이 있다. 「東國歲時記」를 펴낸 憲宗때 사람 洪錫謨다. 이책

의 端午관계 서술을 보면 대충 이리하다.

「애호(艾虎·쑥호랑이)를 閣臣들에게 하사한다. 잔 쑥을 사용하여 비단조각으로 만든 꽃을 묶었는데 그 나풀나풀하는 것이 마치 갈대이삭 같다. 생각컨데 歲時雜記에 단오날 쑥으로 호랑이 모양을 만들거나, 혹은 비단을 잘라 작은 호랑이를 만드는데 쑥잎을 붙여 그것을 머리에 꽂는다고 했다. 우리나라 제도도 여기서 비롯되었다...」(東國歲時記·李錫浩譯) 이처럼 단오와 「쑥」, 특히 우리민족의 端午는 「쑥」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단오날 쑥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菖蒲다. 같은 책에 이런 설명이 있다.

「남녀 어린이들이 창포湯을 만들어 세수를 하고 홍색과 녹색의 새옷을 입는다. 또 창포의 뿌리를 깎아 비녀를 만들어 壽字나 福字를 새기고 끝에 연지를 발라 두루 머리에 꽂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액을 물리친다. 이것을 端午粧이라 한다...」(李錫浩譯)



수릿날 창포탕에 머리를 감는 풍속이 잘못 전해져 오염된 물로 먹을 감고 있다.

단오날 쑥개떡 먹고 창포탕에 머리를 감는 일은 이처럼 오랜 민속이었다.全州 덕진방죽의 썩은 물에서 막무가내로 떡을 감고 머리를 감는 일은 일테면 俗習의 訛習으로 뭔가 잘못 전승된 민속이라 할 것이다.

端午부채와 先祖의 「멋」

단오날 얘기를 하자면 그러나 빠뜨릴수 없는 것이 부채(扇)다. 단오부채, 곧 「端午扇」이다. 우리나라 歲時를 다룬 옛 文獻에는 예외 없이 端午扇이 등장한다. 단오날에 工曹에서는 端午扇을 만들어 올리고 임금은 그것을 재상이하 궁중의 하인들에게까지 고루 하사한다. 그 부채 가운데 가장 큰것은 대나무살이 흰화살 같은데 40 개에서 50 개나 된다. 이것을 白貼이라 하고 칠을 한것을 漆貼이라 한다.

全羅道와 慶尙道の 監司는 節扇(명절에 바치는 부채)을 올린다. 부채는 全州와 南平(全南羅州)에서 만든것이 가장 좋다. (東國歲時記·五月)

이 무렵의 부채 종류를 알아두는 것도 民俗工藝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채는 모양과 색깔에 따라 그것을 지니는 사람의 신분, 성별이 다르다. 대충 꼽아보면 僧頭扇, 魚頭扇, 蛇頭扇, 合竹扇, 斑竹扇, 外角扇, 內角扇, 三台扇, 二台扇, 竹節扇, 廣邊扇, 狹邊扇, 有環扇, 無環扇, 丹木扇, 彩角扇, 素角扇 등이 있다. 색깔도 다양한데, 청색부채는 新郎을 위한 것이고, 백색의 부채는 상제를 위한 것이며, 그밖의 색색의 부채는 아녀자들의 것이다.

團扇(둥근부채)도 5 색 5 종으로 만들어진 다. 혹은 여러색을 섞어 알록달록하게도 만든다. 그 모양에 따라 桐葉扇, 蓮葉扇, 葉花扇, 초엽선 등이 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방구부채(團扇)의 발명은 草木의 큰 잎 따에서 힌트를 얻었는지도 모른다. 우리 조상들은 부채 한가지에도 다만 機能主義로만 만족한게 아니라 이처럼 탐미주의를 붙여 넣었다.

그 「멋」이 지금은 얼마나 전승되었느냐고 自問할때, 탄식과 自嘲가 솟구칠 뿐이다. 단오날 행사에 「團合」만 촉구할게 아니라 「團扇」의 전통정신도 일깨워 불일이다.

都市人의 孤獨한 疾走

가뜩이나 全州市는 단오날을 「市民의 날」로 정하고 있다. 古都를 자처하는만큼 나뻔것은 없다. 그러나 이날이 왜 「좋은날」인가를 알지못하면 안된다. 「5월 5일」을 풀어보자.

古代陰陽哲學은 1,3,5,7,9의 奇數를 陽數라 하고 2,4,6,8,10의 偶數를 陰數라고 했다. 그리고 陽數가 겹치는 날인 3월 3일, 5월 5일 9월 9일 등은 人生의 生氣活力을 북돋운다해서 名節로 삼았다. 그 가운데 5월 5일은 年中 가장 陽氣가 왕성한때이므로 「天中佳節」이라 하여 특히 숭상하며 쑥(艾) 菖蒲 같은 陽氣돋는 풀로써 놀이개를 만들어 차고 그 물로 목욕도 했다. (朝鮮常識問答 105p 崔南善)

天地의 陽氣가 방장하는 5월 5일. 참 좋은 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재래의 端午節이 자꾸만 둔갑하고 있는 時流는 딱하고 아쉽기만 하다.

「쑥」도 요즘엔 비닐하우스 出身이 正月부터 설치고, 菖蒲가 植生하는 물가(水邊)는 예외없이 오염되어 구리기 짝이 없다. 端午扇의 갓가지는 흔적도 없어졌고, 에어컨인지 뭘지하는게 범람하여 요즘 사람들은 더위를 식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몸둥이를 얼우고 있다.

이런 세상이 좋은지 옛시절이 살기 편했는지 각인이 알아서 대답할 노릇이되, 이처럼 端午가 흐려진 세월속에서 나그네는 고독하기만 하다. 땀냄새, 풀냄새, 사람냄새가 물씬거리는 端午명절이 그림기만 하다.

급속한 都市化의 진행으로 어차피 오리지널 端午는 맛볼 수 없겠지만, 이 「孤獨한 疾走」속에 휘말리면서 端午의 懷憶만은 간직하고싶다.